

박상우 장관 “국토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 결집” 당부

- 29일 토목의 날 기념식 찾아 스마트건설 전환 강조·토목기술인 격려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9일(금) (사)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“제27회 토목의 날” 행사에 참석하여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였다.
 - * '98년부터 한양도성이 완성된 날(1398.3.30.)을 기념일로 제정
- 기념식에는 정충기 토목학회장,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,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, 토목기술인, 업계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하였다.
- 박 장관은 치사를 통해 “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토목기술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”를 전하고, “건설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- 특히,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, 철도·도로 지하화,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만드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들이 추진 되는 만큼, 토목기술인의 과감한 도전과 협력을 강조하였다.
 - 또한,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조달, 안전, 품질관리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올 건설정보모델링(BIM,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), 건설자동화장비, 탈현장건설(OSC, Off-Site Construction) 등 스마트 건설(smart construction)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비전을 제시하였다.
 - 아울러, 참석자들에게 “우리 국토인프라 산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, 글로벌 탑 티어(Global Top-tier)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”면서, “정부도 해외 신시장 개척과 스마트 기술 확산 등 토목 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”을 약속하였다.
- 한편, 기념식 이후 열린 건설정책포럼에서는 「국토인프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정책과 제도 혁신 제안」을 주제로 학계·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.

2024. 3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